

전도자의 메뉴얼 (디도서 1:1-5)

우리가 영원히 고백할 말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이다. 우리에게 시대를 살리는 사명과 믿음을 주신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주 전에 저주에서 해방이라는 말씀으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에게 해답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사단을 박살내며 승리하며 사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난 주에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누구인지 결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 행복하다고 하였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즐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된다. 그렇게 한주간 승리하고 온 여러분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동시에 남미 선교의 연약을 가지고 현장에 계신 담임목사님과 현장을 응답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성상위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귀로 확인한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답이되고 방향이 될 줄로 믿는다. 오늘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전도자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전도의 모토이고 선교현장을 알려준 사람이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다.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는 모친과 조부모의 언약안에서 태어나서 복음으로 자란 귀한 렘넌트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아들은 디도이다. 오늘 디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하여 참된 전도자될 축복을 누리기 바란다.

디도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만남과 일 속에서 전도자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 전도자이다. 디도라는 인물이 내게 다가온 이유는 디모데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디도는 모태불신앙이었다. 베드로에게는 절대 붙여주지 않은 제자였다. 그러나 이방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현장에 달려간 바울에게 붙여진 제자였다. 그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앙을 가진 불신자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학문을 많이 연구했고 공부할 때 바울을 만나 답을 얻은 것이다.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고 회심하여 일평생 전도자로 쓰임받는 제자였다. 그리고 그는 한 지역을 살리는 목회자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오늘 디도를 통해서 그가 정리한 연약을 우리도 정리하여 똑같은 연약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디도의 대표적인 사역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세운 고린도교회가 문제다. 생겼다. 그 때 그 지역과 시대적으로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발전된 도시여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다보니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 때에 바울이 디도를 파송한 것이다. 그의 기록을 고후 7:6-15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디도는 사역을 잘해서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그의 두 번째 사역은 그레데 섬이었다. 이곳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고 디도를 불렀다. 그 때 디도가 그레데 섬에 파송되었다. 그 때 그 현장에서 디도는 지역의 흑암을 꺾고 교회 안에 장르와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로마 사역을 할 때 로마에 가서 바울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였다. 또 얼마 후에는 달마디아라는 지역,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목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레데 섬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순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 디도를 통해서 받아야 할 메시지를 말씀 안에서 인도 받기 바란다.

1. 복음이 정리되어 있었다.

말씀의 흐름을 못 타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 젊은이에게 너무나 상처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말씀 따라 가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와 우리같이 말씀의 흐름을 강단 따라가야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없어서 성경을 폈다. 그 성경은 마 27:53절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었다. 이 청년이 그래,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하고 나는 죽어야 하나보다 하고 다시 봤는데 눅 10:37이 나왔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도 한번 더 읽자 하고 성경을 폈더니 요 13:27절이 있다. 니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말씀의 흐름을 잘 타기 바란다.

우리는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받은 전도자이다. 로컬과 파리아를 잘 인도받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 바란다. 디도는 이렇게 강단과 전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였다. 그 시대의 강단,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겠지만 디도는 그 말씀에 더 은혜받고 말씀이 방향이 되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다. 그는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우상문화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서는 행복을 찾지 못했다. 바울이 일차 전도여행중에 복음을 들었다.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라서 단번에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현장으로 나가기 바란다. 당시에 세계의 지식과 경제의 흐름을 주도했던 헬라문화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답도 있었지만 방향도

했다. 그리고 굉장한 종교성도 있었다. 영적 문제의 갈급함에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아사디시피 초대교회 베드로는 유대인을 상대로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선교의 눈을 뜨고 그들에게 복음 전했다. 때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것이다. 복음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유대인을 통해서 오실 복음의 덩어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가 정리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함께 살도록 에덴동산에 주셨다. 그리고 그 에덴동산에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사용설명서가 창 2:17절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매뉴얼이었다. 그런데 그 연약을 놓쳤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갖게 될 죄의 시작이었다. 그 배경이 사단이다.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평생 종노릇 하며 살게 되었다. 그 상태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이다. 영은 죽었다. 육신은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종이 되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상 섬기고 정신문제와 육신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게 고통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된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보다 더 큰 지옥이 있다면 우리 자손 후손들이 불신자 상태의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서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종교 선행 철학등 많은 노력을 한다. 지금 고린도교회 그 시대의 사람들 모습이었다. 그런데 로마서 5:8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나시기 전부터 그 이름이 정해졌다. 마 2:1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했다.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분이 그리스도이다. 모든 사람이 가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이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한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다.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전도 문이 막힌다. 왜냐면 다 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꾸어서 질문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아냐고 질문해봐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때 말씀하면 된다. 당신과 나의 근본문제 해결하신 분, 절대 해결할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답이다, 당신의 저주와 재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당대에 꿀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분이이다. 그 분이 누군지 아냐? 예수다. 라고 말하면 놀랄 것이다. 현장에서 확인을 했다. 지난 주에도 캠프 할 때 렘넌트와 함께 가정마다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50대 정도 된 백인 아저씨가 문을 열긴 했지만 스크린 도어 안에서 나오지는 않았다. 복음 전한다고 하니 시큰둥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를 아냐고 물어봤다. 그러니 관심을 갖길래 그리스도가 뭐지 설명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받고 영접했다. 그분은 자기가 오래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아이러니가 현장에 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분이이다. 메시아 곧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이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고백하고 묵상해야 한다. 그것이 답이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라고 With, Immanuel, Oneness를 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흔들릴 필요 없다.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볼 눈이 열린다. 눈이 안 열리면 이미 각인되어 있는 창 3, 6, 11장이 튀어나온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당황하게 된다.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란다. 복음이 정리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수 있다.

2. 기도가 정리되어 있었다.

서론에 말한데로 디도는 여러 지역을 살린 목회자로 살았다. 그는 누구보다 바울의 모든 삶을 너무나 자세히 보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옆에서 잘 봤다. 그가 고린도교회, 그레데 사역,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한 것을 보면 기도가 그 원동력이 된 것이다. 우리가 담임목사님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다른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닐 것이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잔머리 쓰는 기도를 했다.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일만년이 일초와 같다고 하셨죠?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이걸 본 것이다. 하나님이 이에게 응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천만원이 일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천만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주고말고. 일초만 기다려라 했다. 일만년이 일초와 같다고 했으니 만년만 기다리라는 것이다. 잔머리 기도는 이렇게 다 들린다. 우리가 정말 디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리하고 풍성한 응답을 누리기 바란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상위 하나님을 누렸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니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것을 실제로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을 누린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삼주주를 꺾고 열두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이다. 그러니 디도는 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전도자였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신자 상태일 때 누린 저주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선명해야 전달이 될 수밖에

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삶이 어땠는가? 어둡고 탁하고 방황하는 인생 아니었나? 그런데 분명한 빛인 그리스도를 만나니 얼마나 자유한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매일 한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누린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 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현장에서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그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다고 해서 한참을 찾았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곧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모르면 종교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유대교에 속한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다. 대표적인 단체가 여호와 증인, 제칠일 안식교, 유대교이다. 지금도 안식일을 섬기고 있는 종교들이 그렇다고 보면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기도를 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 이 세상정복하라고 축복을 주셨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이 땅을 정복하라고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에 생명력을 주셨다는 것이다. 창 2:1-18절 사이에 에덴동산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말씀대로 정복하면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된다.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기도를 누릴 때 세가지 초월이 일어난다.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시공간을 초월할만큼 응답하신다. 지금도 237, 오천종족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조용히 예배드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증인으로 담임목사님과 선교팀이 남미에 가 있는 것이다.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다민족 복음화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기도나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발전되고 살기 좋은 시대이다. 그런데 영적 문제가 가득차 있다. 어찌 어린이 수련회를 했는데, 어린이에게 충격적인 것을 보여줬다. 필라델피아 켈싱턴이라는 동네가 있다. 거기 마약으로 찌든 곳인데 신중마약이 나와서 그걸 먹으면 좀비같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비와 같이 살아간다. 동영상 한번 찾아보라. 필라델피아 켈싱턴이라고 찾으면 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포럼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마약에서 중독되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간증을 했다.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홀리스가 아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데 단 한순간의 실수로 빠져서 빠져나올수가 없는 것이었다. 한 사람이 눈을 흘리며 말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된것도 안타까운데 자기 딸까지도 빠져서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그 동네에 가니 마약이 그냥 주머니 싸게 주는 것이다. 이게 전략인 것이다. 그래서 중독이 되게 되어서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것이다.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잘못된 것을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복음을 바꾸는게 훈련이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나도 모르게 성공중심 물질중심이 각인되어 있다. 그걸 바꿀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이야기 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목회자시대로, 종직자 시대로 렘넌트 시대이다. 종직자가 들으면 절대 이해할수 없는 말이다. 3저주와 12가지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아우성 할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온 목회자, 종직자 렘넌트가 주역이고 이 시대를 살릴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경리 393을 말씀 드렸다. 전도자 류목사님이 이것을 알려주셨다. 이미 하는 분도 있고 이해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다른 기도 하지 말고 393에 기도를 맞춰보라. 이게 바로 마 6:33의 기도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이다. 거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3. 전도가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천국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이집사가 들어왔다. 예수님이 이집사 왔어? 하고 인사를 하셨다. 이 집사는 예수님 보고 너무 감사해서 인사하고 옆에 서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목사님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이목사야 니가 왔구나 하고 고생했다면서 끌어 앉는 것이다. 그래서 이집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천국에서도 인정받는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하신 말이야, 오랜만에 목사가 와서 기뻐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 목사가 와서 사역자를 전도 하라는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라 하신 것이다. 우리가 미국교회에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션을 주셨다. 유머같지만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목사님을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란다. 목사님 전도하는게 어렵지 않다. 겸손하게 하고 내가 가진 복음만 전하면 감동을 하게 된다. 이번 기간에 많은 목사님들 전도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바란다. 우리가 전도가 정리되어야 한다. 디도가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가 거의 흡사하다. 당시 로마시대에 많은 우상문화가 전달되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시대적인 전도자와 담임목사님을 통해 성경적 전도를 찾아내고 인도받고 있다. 우리의 기준과 방법은 그리스도도 성령인도이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전도의 매뉴얼을 말씀드리면 다섯가지 절대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절대 주권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

민하고 있는가? 가족 때문에 고민하는가? 언약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들에게 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누리기 바란다. 절대 계획이다.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잘 모르면 문제 속에 금방 주저 앉고 두려워하게 된다. 긴장한다. 위기가 생기면 어쩔줄 모르고 도망가기 까지 한다. 그런데 거기 절대 계획이 있다면 어떨것인가? 어떤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절대 계획을 누리라.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이다. 성경은 절대 언약이다.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절대 언약이다. 이거 받은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다. 절대 언약이 답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절대 예정이다. 우리의 실력 배경 상관 없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인도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이다. 세계 복음화는 절대 목표인데, 그것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신다. 이것이 절대 목표이다. 놓치면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망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막으려는 나라도 망했다. 그 시대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 속에서 전도가 나오는 것이다. 전도 자체가 하나님에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내가 본문에서 은혜받은 것이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하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도자 바울이 쓴 글이다. 전도자는 그 누구보다 그 전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감옥일지라도 감옥으로 갔다. 일차, 이차, 삼차는 바울이 현장에 직접 가서 전도했다. 그런데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4-5차 전도까지 있었다고 한다. 감옥에서 어떻게 했을까? 전도자가 감옥에 있으니 각 지역의 전도자들이 와서 말씀 듣고 자기 현장을 살린 것이다. 전도자 바울은 5차 전도까지 평생 응답받은 증인이다. 이것을 옆에서 자세히 본 디도도 그렇게 응답 받은 것이다.

우리는 다락방 전도 훈련 속에 있다.우리는 수도 없이 다락방, 팀사역, 지교회라는 단어를 들었다. 그런데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언제 보게 되니?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전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쉬운 말 같은데 당장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는가? 물론 육신을 위한 의식주도 중요하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24 해야 한다. 그게 안되니까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틀리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할 때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여 사람 일을 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바꿔야 할 영적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차근차근 만남과 일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체현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조용히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다락방이다.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도 나와 같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게 팀사역이다.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포함하고 기도 응답을 포함하고 전도를 포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미션홀이다. 나의 직업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응답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문 교회이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집이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지교회이다. 왜 그럴까?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최고의 임마누엘 축복이 이것이다.

결론

복음이 정리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면 여유가 생겨서 사람 사건 문제 볼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런데 복음이 정리가 안되면 도저히 이렇게 해석이 안되니까 화나고 열받고 옛날것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정리하기 바란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본문제구나, 그 근본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정리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면 된다. 성삼위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생명을 누리는 기도, 3초월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 237 나라 살리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왔다고 했다. 복음 가진 자만이 이 시대를 살릴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자, 종직자, 렘넌트의 시대가 왔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축약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자세히 보라.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 내면을 보는 것은 그 사람과 5분만 대화하면 보인다. 그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아들문제, 남편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바울의 제자, 디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가 정리되기를 기도한다. 디도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참 아들, 그리고 다른 서신에서는 나의 동무라고 표현한다. 나의 동역자라고도 표현한다. 교회의 사자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다. 우리는 담임목사님의 동역자고 전도자이다.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교회의 사역자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주간 전도자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고 현장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